

정주여건 조성·지역인재 채용 등 공동 노력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공식 출범

공동 회장에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이낙연 지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공공기관과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나주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협의회장은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공동으로 맡게 됐다. 이들 공공기관장 등은 매년 2차례씩 정기 모임을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이상무 사장은 “빛가

람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결단해 준 광주시와 전남도에 감사드리며 전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한 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빛가람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두 개의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조성했다”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호혜원 이전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하는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을 통해 다시 일어서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임하겠

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전공공기관 기관장들은 미흡한 빛가람혁신도시의 교통 여건이나 의료시설, 문화공간 등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직원이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과감한 교육 투자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지역 친화적 기업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나주 혁신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한전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며 “혁신도시에 기업이나 각종 협회 등이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부지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사장은 “지역 인재 육성에도 관

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이전공공기관장에게는 정기회와는 별도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수시 모임을, 광주시와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는 기관 및 직원·가족 등이 빛가람혁신도시에 조기 정착하기 위한 선도투자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조기 정착 지원, 혁신도시의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공동 조성, 지역 인재 채용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사업 추진, 이전 공공기관 관련 지역산업의 육성·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4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 무궁화실에서 열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신정훈 국회의원,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16개 이전기관 기관장과 지역 단체장·정치인 등이 공동협력과 지역발전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세월호 피해구제 ‘위로금’ 지급 의견 접근

여야, 재원 마련 막판 조율

29일 본회의 법안 처리키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는 24일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 상당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던 ‘배상금’ 외의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로금 재원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성금 이외에 부족한 부분은 국비

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국비로 위로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대하고 있어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백재현 의원은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위로금을 다 지급해왔다”며 “위로금이 얼마가 될진 모르지만 성금으로 충당이 안 된다면 국비를 투입해서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의원은 “특별위로금을 자꾸 국비로 주자는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고 일어나서 법적 손해배상 다 해주고 또 얹어주는 이런 건 세상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다만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만큼 26일까지 다시 만나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차장 함께 사용해요”

광주시, 종교시설 등 100곳과 나눔 협약 체결

광주시는 24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공공기관 등 100곳과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주차공간 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유휴 주차공간을 시민과 공유하는 이번 나눔 협약에는 종교시설 31곳(2280면), 공공기관 60곳(2242면), 마을공간 9곳(431면)이 참여했다.

주차공간 100곳 위치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공개하고 각 주차공간 입구에 무료이용안내 표지도 부착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주차공간 나눔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정비와 노면보수 등을 지원하고 나눔기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장현 시장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공간의 나눔을 넘어 시민에게 행복을 기부하는 공동체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 시장, 자치구별 대표인 이형환(계림교회)·박성진(예일교회)·이장현(송정소방교회)·박신준(문리교회) 목사, 박기수(남구청소년수련관) 관장 등 주차공간 나눔에 동참한 시설·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사장 공모 28명 지원

노조 “책임·지속성 갖춘 인물 선임을”

24일 끝난 전남개발공사 제6대 사장 공모에 무려 28명이 지원했다. 임명권자인 이낙연 전남지사가 “염두에 둔 사람이 없으며 능력 위주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장 응모자는 기업인 출신 16명, 공무원 출신 5명, 기타 7명으로 분류됐다.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초 서류심사를 실시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 후 1월 중순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이 지사에게 복수 추천하게 된다. 2명 중 1명을 이 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시스템이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간으로, 부채 감축 및 적자 구조 개선은 물론 오토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 검찰 수사로 인해 침체된 조직 추스르기 등의 과제를 맡게 된다.

한편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신임 사장은 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 책임성과 지속성을 갖고,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사장의 돌연 사퇴로 인한 조직 내부 혼란 및 업무 공백, 오토부동산 사업 검찰 수사 등 공사가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전남도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율적인 의사결정권 없이 수동적으로 지시와 결정에 따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이라는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김정은, 이희호 여사에 친서”

김성재 전 장관 “내용 곧 공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희호 여사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24일 김대중평화센터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북한 측 초청으로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 김강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를 만나고 돌아와 김 비서로부터 김정은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친서의 주요 내용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3주기때 조화를 보내준 것에 대한 각별한 감사와 내년 봄 따뜻한 때 이 여사가 평양에 와서 편히 쉬고 가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서 내용 전문은 “편지를 이희호 여사께 먼저 보여주고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평화센터 측은 친서를 사진으로 찍어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오후 3시45분께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로 임명해 기자들에게 “김강건 비서가 ‘내년 6.15 15주년인 데 남북 관계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김 비서는 금강산 관광, 5·24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 문제에서 소로(小路)를 대통로로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김 비서에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년이 광복 70주년이니 민족 분단 역사를 끊고, 평화롭게 변형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도 남북 공동 문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내가 그 준비 위원장을 맡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여성 근로자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북측에도 다시 만나 협의하자고 하니 김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방북 불허에 대한 북측의 언급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품 행사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력대상자겸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축적복권기념품 포함)

선물 1
(개회식 명문 응모권 증정)
1등: 황금열쇠수금1년(1명)
2등: 가전제품 100만원 상용권(2명)
3등: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등인 1인 포함)3명

선물 2
(기념품(택1))
[핸드크림] [차약세트]

선물 3
(개회식 축식복권 증정(100%당첨))
[통장지갑] [글리시빅 밀폐용기세트] [세리믹코팅 냄비]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일(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자격기준
- 출자금 10만원 이상 할당금액
- 정계출 15000원 이상 가입금액
- 대출 1,000만원 이상 상환금액
- 생김날, 자문사보통 가입고액
- 전자금을 신규자
- 자문사 3년 이상 신규자
- 체크카드 신규자(최대이상 이용고액)
* 경품추첨일까지 결산까지 100% 당첨
* 참가 자격기준은 회원에 한함

대인본점 :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쇼핑 1층
충장지점 : 062)223-7217, 232-7218 충장로 5가 입구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입학상담문의 **GoChina** 중국 전문 번역당성

www.gochina.co.kr
지금 전화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233-9582
(중) 구오말리